

## 초등학생들의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

임미숙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 A Study on Alcohol Expectancy of Elementary Schoolchild

Lim, Mi-Suk · Park, Young-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Researchers' common findings is that there are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f alcohol expectancy on drinking behavior. Therefore we would effectively prevent troublesome drinking of the youth and university students by inquiring and controlling critical factors affecting alcohol expectancy.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first, to empirically test factors affecting the alcohol expectancy level of elementary schoolchild(potential drinker).;second, to suggest the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pre-alcohol prevention program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eighteen factors included in four categories(general characters, environmental characters, alcohol knowledge, drinking experience) affecting alcohol expectancy level were found out.

623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drawn from 8 elementary schools in Daegu,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ed that the alcohol expectancy level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was negative in general. And it was proved that 9 fact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cohol expectancy level. To put it concretely(see Fig.),

<Fig> Factor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lcohol expectancy level

factors	alcohol expectancy level	
	less negative (or positive)	more negative
grade	6	5
life style	live with parents	live in oneself
school adaptation	be difficult	well adapt
drinking experience	have been	not have
drinking motive	partakes of sacrificial drink or curiosity	mistakes
feeling in drinking	nice	displeased
drinking at present	drinking	no drinking
drinking intention	would drink in plenty	would not drink
knowledge about alcohol or drinking	have little knowledge	have much knowledge

- (1) It was proved that schoolchildren with bad environment(live in oneself, displeased drinking feeling) rather than good environment(live with parents, nice drinking feeling) for drinking had more negative alcohol expectancy.
- (2)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at partakes of sacrificial food and drink have an influence on the first drinking of most elementary schoolchildren. And it was proved that schoolchildren with this drinking experience rather than any other motives had less negative alcohol expectancy.
- (3) It was proved that schoolchildren adapting themselves rather than being difficult in school life had more negative alcohol expectancy. And the more knowledge about alcohol or drinking schoolchildren had, the more they had negative alcohol expectancy
- (4) It was proved that schoolchildren having drinking experience or drinking at present rather than having no drinking experience or not-drinking at present had less negative alcohol expectancy.
- (5) It was proved that schoolchildren having strong drinking intention rather than having weak or no drinking intention in the future had more positive alcohol expectancy.

Based on previous results, guideline for development of pre-alcohol prevention programs can be represented : discriminated programs development on educatee, drinking education programs development increasing the power of self-control about alcohol and drinking, social education or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development on drinking, open preschool education to substantially prevent drinking or alcoholism etc.

The findings, however,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because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 measurement and sampling as follows.

First, selection bias because of limited selection of sampling. It is because the subjects are drawn from only 8 elementary schools in Daegu.

Second, less refined measurement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detailed measures on alcohol knowledge, alcohol expectancy level especially.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suggested and encouraged with more refined methodologie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및 대학생 음주는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 음주는 학교, 보건당국, 청소년 상담가,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음주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음주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국 대학생 음주율(86%)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자 비율(93%)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은 원인규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복문화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령기 아동들이 쉽게 술과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청소년기 이전의 학령기 아동들이 음복문화나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음주를 경험한 비율은 52.1%(김

성천, 2000)나 된다. 그러나 Bandura(1977)에 의하면 실제로 음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동들도 부모나 가까운 친척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T.V 등을 통해 방영되는 음주장면이나 술 광고 등을 관찰함으로써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음주기대가 청소년기 이후의 음주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음주기대는 음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대리학습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음주기대가 음주행동의 시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음복문화는 어린 나이부터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할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및 대학생 음주문제의 원인규명과 해결점 모색을 학령기에 형성된 음주에 대한 기대감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7세에서 12세까지를 학령기 아동이라 하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주저치 않고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하며 익히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적인 통찰력과 예견력이 부족하여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위험스러운 시기이다(김계숙·김희숙, 1993).

이 시기는 일생동안 실천할 건강습관이 마련되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한번 숙지된 건강지식은 나이가 들어도 수정하기가 어렵게된다(문정순, 2001). 따라서 학령기 아동들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대를 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올바른 음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의 음주에 대한 보건교육은 4, 5, 6학년 체육 교과서에 약물의 오용 및 남용, 흡연, 흡연과 알코올의 피해, 흡연과 알콜 및 기호품의 영양, 항정신성 약물과 건강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음주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이순영, 2002).

실제로 초등학생 음주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태도와 음주경험(문정순 외 3인, 2001; 문정순 외 2인, 2001; 김성천, 2000; 간경애 1999)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지식 및 태도(천경애, 1994), 초등학생 음주예방 및 보건교육의 방향(문정순 외 3, 2000; 이순영, 2002), 음주부모를 둔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유용언, 1998) 등이 있으나, 초등학생의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sup>1)</sup>. 따라서 전통적인 음복문화권 속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의 음주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음주기대에 미치는 일반적·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대학생의 체계적인 음주문제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대수준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생들의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한다.

나. 초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기대수준을 파악한다.

다. 초등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기대수준을 파악한다.

라. 초등학생들의 음주경험에 따른 음주기대수준을 파악한다.

마. 초등학생들의 음주지식수준에 따른 음주기대수준을 파악한다.

1) 청소년의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석·윤혜미(2001), 안경선(1996), 류경희(1997), 최정아(1998), 윤혜미 등(1999), 임계영(2000) 등이 있으며 대학생 음주기대와 관련된 연구로는 홍종필(1989), 이민규(1993), 김석도(2000), 윤혜미(2000) 등이 있다.

### 3. 연구의 제한점

대구시내 4개 교육청 산하 8개 학교의 5·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 ① **일반적 특성** :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년, 성별, 종교, 학교적응, 교우관계(사회성)등을 의미한다.
- ② **환경적 특성** : 아동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음주 여부, 부모의 음주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등을 의미한다.
- ③ **음주지식** : 4, 5, 6학년 체육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음주에 대해 인지하고 하고 있는 지식 수준을 의미한다.
- ④ **음주경험** : 부모의 권유나 호기심 등으로 인해 1회 이상 음주를 경험한 것을 말한다.
- ⑤ **음주기대** : 음주 후의 효과나 음주로 인한

결과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을 말하며 미래의 음주행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음주기대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기대로 구분할 수 있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모형

청소년기에 음성적으로 시작된 음주경험은 대 학생회에서 다양한 음주행동을 하게된다. 이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단계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기대 수준을 조사하고, 초등학교생들의 음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생들의 음주기대에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음주에 대한 지식수준, 음주경험을 도출하였고, 이들 영향요인에 따른 음주기대수준을 파악하였다.

〈표 II-1〉 자료수집 대상

교육청	표본추출(5, 6학년)	표집인원
동부교육청	A 초등학교 : 2개 학급	156명
	B 초등학교 : 2개 학급	
남부교육청	C 초등학교 : 2개 학급	155명
	D 초등학교 : 2개 학급	
서부교육청	E 초등학교 : 2개 학급	159명
	F 초등학교 : 2개 학급	
달성교육청	G 초등학교 : 2개 학급	153명
	H 초등학교 : 2개 학급	
4개 교육청	16개 학급 (5, 6학년 각 8개 학급)	623명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구시내 초등학교 5, 6학년 70,648명(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2000)이며, 표본집단은 모집단의 1/100인 700여명이다. 조사대상 표본은 대구시 교육청 산하 4개 교육청에서 교육청 별로 2개 학교, 5·6학년 각 1학급씩 총 16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68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623명의 자료(91.6%)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02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 연구자가 사전에 허락을 받은 대구시 교육청 산하 8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5, 6학년을 대상으로 양호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목적과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는 초등학교생과

청소년 음주실태 및 음주기대와 관련된 기존문헌을 참고로 하여 질문지를 1차적으로 개발하였다. 1차 완성된 설문지는 아동복지학교수, 예방의학교수 각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후, 천안지역 초등학교 교사 3인과 5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Cronbach's  $\alpha$  계수 산정방법에 따라 각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음주경험 포함) 12문항, 환경적 특성 5문항, 음주지식 10문항과 음주기대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측정은 문정순 외 3인(2001), 문정순 외 2인(2001), 김성천(2000)이 사용한 문항들 중에서 음주기대의 형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하였다. 음주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4, 5, 6학년 체육교과서에 수록된 음주관련 내용들과 문정순 외 3인(2001)이 사용한 문항들을 초등학교생들의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표 II-2).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은 Alcohol Expectancy Scale(AES ; Leigh & Stacy, 1993)을 수

〈표 II-2〉 측정도구의 도출과정

측정도구	기존연구(참고문헌)	본 연구의 측정항목	항목수
일반적 특성 (음주경험 포함)	· 문정순 외 3인(2001) · 문정순 외 2인(2001) · 김성천(2000)	성별, 학년, 종교, 교우관계(사회성), 학교적응정도, 부모동거형태, 음주경험, 장래 음주의도 등	12
환경적 특성	· 문정순 외 3인(2001) · 문정순 외 2인(2001) · 김성천(2000)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부모의 음주유무, 부모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후 행동, 음주교육 유무	5
음주지식	· 4~6학년 체육교과서에 수록된 음주관련 내용 · 문정순 외 3인(2001)	판단력 감소, 기억력 감소, 소량 음주의 무해, 음주의 습관화, 조기음주의 유해, 음주운전의 위법 등	10
음주기대	· 홍종필(1989) · 윤희미 등(1999) · AES(Leigh & Stacy, 1993 ; 김석도, 2000)	긴장감 감소, 사교성 향상, 인지력·운동기능향상, 성격감정 향상의 4개 영역	15
계			42

〈표 II-3〉 음주지식 측정

내	용	예	아니오
1.	술을 마시면 생각이 더욱 분명해 진다.		
2.	술을 마시면 기억력이 좋아져 공부를 더 잘 할 수있다.		
3.	술은 간이나 위에 병을 일으킨다.		
4.	술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5.	한·두잔의 술은 누구에게나 해롭지 않다.		
6.	술을 자주 마셔도 조금씩만 마시면 중독이 되지 않는다.		
7.	음식과 같이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		
8.	술을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9.	어린이나 청소년 등 어른이 되기 전에 마시는 술은 더 해롭다.		
10.	술을 마시고도 정신만 또렷하면 운전을 해도 괜찮다.		

〈표 II-4〉 음주기대 척도 구성 내용

영	역	내	용	신뢰도 ( $\alpha$ 계수)
긴장감 감소	1.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 질 것이다.		.7990
	3.	술을 마시면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4.	술을 마시면 학교생활에서의 모든 고민을 잊게 해 줄 것이다.		
	10.	술은 긴장을 풀어 줄 것이다.		
	13.	술을 몇 잔 마시면 말이 자유롭게 더 잘될 것이다.		
사교성 향상	14.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될 것이다.		.7334
	2.	술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수 있게 해 줄 것이다.		
	5.	술을 마시면 친구들과 더 친해질 것이다.		
	6.	술은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지력·운동 기능 향상	15.	술은 모임을 더 즐겁게 해 줄 것이다.		.7247
	7.	술을 마시면 주의집중이 더 잘 될 것이다.		
	8.	술을 마시면 이해력이 더 증가할 것이다.		
성적감정 향상	9.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 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6599
	11.	술을 마시면 더 로맨틱해질 것이다.		
		12.	술을 마시면 여성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정하여 김석도(2000)가 사용한 질문지와 고등학교 생의 음주기대를 연구한 윤혜미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알콜기대질문지, 그리고 청소년의 음주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홍종필(1989)이 사용한 질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등학교 연령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내용만으로 15문항을 작성하였다. 음주기대의 문

항은 5점 척도를 하여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기대가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음주기대의 하위영역으로 긴장감 감소, 사교성 향상, 인지력·운동기능의 향상, 성적감정 향상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4와 같다.

### 3) 분석방법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환경적인 특성, 음주지식, 음주기대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기대와 음주경험에 따른 음주기대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하였고, 음주지식 정도에 따른 음주기대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는 5학년이 50.9%(317명), 6학년이 49.1%(3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8.4%(369명), 여학생이 41.6%(259명)이었다.

부모님 모두 같이 사는 학생은 92.8%,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편부모인 학생이 5.5%, 부모님 모두 없이 조부모나 친척 등과 생활하는 학생이 1.4%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1.5%, 천주교가 9.6%, 불교가 42.2%, 기타 종교가 2.4%, 종교가 없는 경우가 24.2%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는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6.4%, 3~5명 정도라고 한 학생이 11.9%인 반면, 1~2명밖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로 대부분 친구관계가 원만하였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8.8%,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47.2%이었으며,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이 3.7%이었다(표 III-1 참고).

### 2. 대상학생의 환경적 특성

학생들의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은 민주적이고 나를 이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7.3%, 좀 엄하고 무서운 전제형이 16.4%,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표 III-1〉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학년	5	317	50.9
	6	306	49.1
	계	623	100
성별	남	364	58.4
	여	259	41.6
	계	623	100
부모동거형태	부모 동거	578	93.1
	편부모 동거	34	5.5
	친인척 동거	9	1.4
	계	621	100
종교	기독교	134	21.5
	천주교	60	9.7
	불교	263	42.2
	기타	15	2.4
	없음	151	24.2
	계	623	100
친구관계	5명 이상	538	86.7
	3~5명	74	11.9
	1~2명	9	1.4
	계	621	100
학교생활	재미있다	304	49.0
	그저 그렇다	294	47.3
	힘들다	23	3.7
	계	621	100

\*무응답자 제외

해주는 익애형은 5.6%, 너무 바빠서 참견을 못하는 방임형은 10.7%로 응답했다.

부의 음주빈도에 대하여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16.8%,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끔씩 마시는 경우가 62.4%, 자주 마시는 경우가 18.7%,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에 2.1%로 응답하였다. 모의 음주빈도에 대하여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54.6%,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가끔씩 마시는 경우가 43.9%, 자주 마시는 경우가 1.3%,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에 0.2%로 응답하였다.

부모님의 음주 후 행동에 대해서는 평소와 달라진 행동이 없었다가 45.3%, 술을 마시기 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가 25.1%, 술을 마신 후

〈표 III-2〉 대상학생의 환경적 특성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부모의 양육태도	민주형	410	67.3
	전제형	100	16.4
	익애형	34	5.6
	방임형	65	10.7
	계	609	100
부의 음주빈도	전혀 안 마심	103	16.8
	기분 좋을 때 가끔	278	45.2
	기분 나쁠 때 가끔	106	17.2
	자주 마심	115	18.7
	거의 매일 마심	13	2.1
계	615	100	
모의 음주빈도	전혀 안 마심	340	54.6
	기분 좋을 때 가끔	217	34.9
	기분 나쁠 때 가끔	56	9.0
	자주 마심	8	1.3
	거의 매일 마심	1	0.2
계	622	100	
음주 후 부모행동	행동에 변화가 없음	274	45.3
	기분이 좋아짐	152	25.1
	말을 많이하고 소리지름	55	9.1
	기분이 안좋아 보임	44	7.3
	부부싸움을 함	24	4.0
	집안의 물건을 부숨	27	4.4
	본인이나 가족이 다침	11	1.8
	기 타	18	3.0
	계	605	100
음주교육	유	129	21.3
	무	477	78.7
	계	606	100

\*무응답자 제외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9.1%, 술을 마시고 기분이 안좋아 보였다가 7.3%, 술을 마신 후 부부싸움을 하였다가 4.0%,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순적이 있다가 4.4%,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경험이 있다가 1.8%, 그냥 자거나 기타의 행동을 나타낸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음주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가 21.3%, 받은 적이 없다가 78.7%로 나타났다(표 III-2 참고).

〈표 III-3〉 대상학생의 음주경험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음주 경험	유	417	66.9
	무	206	33.1
	계	623	100
학년	5	221	53.0
	6	196	47.0
	계	417	100
성별	남	270	64.7
	여	147	35.3
	계	417	100
음주 경험 연령	7세 이하	154	36.9
	8~9세	63	15.1
	10~11세	137	32.9
	12~13세	63	15.1
계	417	100	
최초 음주 동기	명절이나 제사때 음복	92	22.0
	호기심	95	22.8
	친구나 선배의 권유	4	1.0
	실수로	222	53.2
	기타	4	1.0
계	417	100	
음주후 느낌	상당히 좋음	15	3.6
	나쁘지 않음	70	16.8
	별 느낌 없음	105	25.2
	매우 나쁨	208	49.9
	기타	19	4.5
	계	417	100
재음주 의도	꼭 마셔보고 싶다	10	2.4
	마셔보고 싶다	29	7.0
	그저그렇다	89	21.3
	마시고 싶지 않다	98	23.5
	다시는 마시고 싶지 않다.	191	45.8
	계	417	100
	현재 음주	음복시에 마심	53
마시고 싶을 때		23	5.6
마시지 않음		340	81.7
계		416	100
장래 음주 의도	많이 마심	7	1.1
	적당히 마심	155	25.0
	가능한 안 마심	267	43.0
	전혀 안마심	192	30.9
계	621	100	

\*무응답자 제외



### 3. 대상학생의 음주경험

대상학생의 음주경험은 경험자가 66.9%, 무경험자가 33.1%이었고, 경험자 중 남학생의 비율이 64.7%, 여학생의 비율이 35.3%로 나타났다. 전체 음주경험자 중 5학년이 53.0%로 6학년의 47.0%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음주경험에 있어서 7세 이하에서 경험한 학생은 36.9%, 8~9세에는 15.1%, 10~11세는 32.9%, 12~13세는 15.1%로 나타났다.

음주를 경험하게 된 동기는 명절이나 제사때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권유로 마시는 음복을 경험한 경우가 22.0%, 술맛이 궁금하여 호기심으로 마셔본 경우가 22.8%, 친구나 선배·형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시게 된 경우가 1.0%, 물이나 음료수로 잘못 알고 실수로 마신 경우가 53.2%, 기타에 1.0%로 응답했다.

음주 후 느낌에 대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6%,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은 없었다가 16.8%, 별 느낌이 없었다가 25.2%, 기분이 매우 나빴다가 49.9%, 어지러웠다 등 기타로 4.5%가 응답하였다.

처음 술을 마신 이후 다시 마셔보고 싶은가에 대해서 꼭 마셔보고 싶다가 2.4%, 마셔보고 싶다가 7.0%, 그저 그렇다가 21.3%, 마시고 싶지 않다가 23.5%, 다시는 마시고 싶지 않다가 45.8%로 응답하였다. 요즘도 술을 마시는 가에 대한 질문에 제사나 명절 때만 되면 음복으로 마신다는 학생이 12.7%, 마시고 싶어질 때 한 번씩 마신다가 5.6%, 마시지 않는다가 81.7%로 응답했다.

장차 어른이 되면 술을 마시겠냐는 장래 음주 의도에 대한 질문에 많이 마실 것이다가 1.1%, 적당히 마실 것이다가 25.0%, 될 수 있으면 안 마실 것이다가 43.0%, 전혀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0.9%이었다(표 III-3 참고).

### 4. 대상학생의 음주지식수준

음주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 10점 만점으로 측

〈표 III-4〉 대상학생의 음주지식수준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5점 이하	21	3.4
6~7점	145	23.3
8~9점	333	53.4
10점	124	19.9
계	623	100
점수범위	3 ~10	
평균 ± 편차	8.18 ± 1.37	

〈표 III-5〉 특성별 음주지식정도

특 성	구 분	빈 도(명)	평 균	편 차
성별	남	354	8.10	1.41
	여	259	8.37	1.30
학년	5	317	8.17	1.39
	6	306	8.20	1.37
학교적응	재미있다	304	8.36	1.30
	그저그렇다	294	8.06	1.37
	힘들다	23	7.40	1.37

\*무응답자 제외

정하였는데, 평균이 8.18±1.37이었고, 최소값은 3점, 최대값은 10점이었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8.17, 6학년이 8.20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8.10, 여학생이 8.37이었다. 학교적응도에 따라 재미있다고 한 경우가 8.36, 그저 그렇다가 8.06, 힘들다고 한 경우가 7.40으로 나타났다(표 III-3 참고).

### 5. 대상학생의 음주기대 수준

음주기대는 음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형성되며 초등학생들의 성장배경 특히 음주의 사회화과정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음주기대 수준은 총 15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기대 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음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낮은 점수,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에 해당된다

〈표. III-6〉 대상학생의 음주기대 수준

내 용	빈 도 수 (%)					계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지 않다 (5)	
1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 질 것이다.	21(3.4)	71(11.4)	166(26.6)	127(20.4)	238(38.2)	623(100)
2 술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8(2.9)	100(16.1)	134(21.5)	151(24.2)	220(35.3)	623(100)
3 술을 마시면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44(7.1)	138(22.2)	125(20.1)	137(22.0)	179(28.7)	623(100)
4 술을 마시면 학교생활에서의 모든 고민을 잊게 해 줄 것이다.	31(5.0)	58(9.3)	91(14.7)	199(32.0)	242(39.0)	621(100)
5 술을 마시면 친구들과 더 친해 질 것이다.	14(2.2)	34(5.5)	94(15.1)	182(29.2)	299(48.0)	623(100)
6 술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0.8)	16(2.6)	66(10.6)	174(27.9)	362(58.1)	623(100)
7 술을 마시면 주의집중이 더 잘될 것이다.	2(0.3)	4(0.6)	31(5.0)	157(25.3)	427(68.8)	621(100)
8 술을 마시면 이해력이 더 증가할 것이다.	5(0.8)	14(2.3)	36(5.8)	160(25.8)	406(65.4)	621(100)
9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 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12(1.9)	23(3.7)	52(8.4)	162(26.1)	372(59.9)	621(100)
10 술은 긴장을 풀어줄 것이다.	54(8.7)	112(18.0)	143(23.0)	115(18.5)	198(31.8)	622(100)
11 술을 마시면 더 로맨틱해 질 것이다.	7(1.1)	35(5.6)	102(16.4)	174(27.9)	305(49.0)	623(100)
12 술을 마시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이다.	17(2.7)	47(7.6)	100(16.1)	152(24.5)	305(49.0)	621(100)
13 술을 몇 잔 마시면 말이 자유롭게 더 잘 될 것이다.	75(12.0)	99(15.9)	97(15.6)	123(19.7)	229(36.8)	623(100)
14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될 것이다.	78(12.5)	112(18.0)	123(19.8)	110(17.7)	199(32.0)	622(100)
15 술은 모임을 더 즐겁게 해 줄 것이다.	90(14.4)	128(20.5)	139(22.3)	82(13.2)	184(29.5)	623(100)
계						623(100)
	평균 ± 표준편차		3.92 ± .73			

\*무응답자 제외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음주기대의 전체적인 평균은 3.92이고, 최소점수는 1.53, 최대점수는 5.00로 대상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기대에 관한 15문항 중에서 술은 모임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15번 문항),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될 것이다(14번 문항), 술을 마시면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해 줄 것이다(3번 문항)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에 34.9%, 30.5%, 29.3%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음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항목으로 술을 마시면 주의 집중이 더 잘될 것이다(7번 문항), 술을 마시면 이해력이 증가할 것이다(8번 문항), 술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6번 문항)순으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에 94.1%, 91.2%, 86%가 응답하였다.

## 6.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기대

음주에 대한 기대수준은 5학년이 3.99점으로 6학년의 3.84점 보다 유의하여 높아 좀더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t = 2.468, p = .014$ ). 성별에 따른 음주기대는 남학생이 평균 3.89점이고, 여학생은 3.95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동거형태로 보면, 부모가 같이 동거하는 형이 3.91점이고, 편부모동거형이 3.72점인 반면, 부모없이 친척이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무부모형은 4.58점으로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형보다 유의하게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F = 5.052, p = .007$ ).

종교형태에 따른 음주 기대수준은 기독교가 3.96점이고, 천주교가 3.82, 불교가 3.96, 기타종교가 3.90, 종교가 없는 경우가 3.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친구관계에서 5명 이상인 경우의 음주기대는 3.93점이고, 3~5명 정도는 3.82점, 1~2명 뿐인 경우는 3.77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한 학생이 4.00점으로, 그저 그렇다고 한 학생의 3.80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 = 3.669, p = .026^*$ ).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음주기대수준은 부모가 민주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2점이고, 익애형은 3.94, 전제형은 3.96, 방임형은 3.80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의 음주 및 빈도에서 전혀 안 마시는 경우가 3.85점이고, 기분 좋을 때 가끔 마시는 경우가 3.95점, 기분 나쁠 때 가끔 마시는 경우가 3.90점, 자주 마시는 경우가 3.87점,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가 4.29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의 음주에 따른 기대수준은 전혀 안 마시는 경우가 3.95점, 기분이 좋을 때 가끔 마시는 경우가 3.90점, 기분이 나쁠 때 가끔 마시는 경우가 3.79점, 자주 마시는 경우가 4.11점,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가 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기대수준은 3.88점이고, 경험이 없는 집단은 3.93점으로 음주교육 여부에 따른 음주기대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 7. 음주경험에 따른 음주기대 수준

음주경험에 따른 기대수준은 경험자가 평균 3.85점, 무경험자가 4.06점으로 음주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음주기대가 보다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3.379, p = .001$ ). 음주경험자 417명 중에서 음주사유는 명절이나 제사때 음복으로 마신 경우의 평균은 3.77점, 술맛이 궁금하여 호기심으로 마신 경우는 3.67점,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마신 경우는 4.42점, 물이나 음료수로 잘못 알고 실수로 마신 경우는 3.94점이고, 기타의 응답이 4.15점이었다. 실수로 음주를 한 경우가 호기심에 의하여 음주를 한 경우에 비해 좀 더 유의하게 부정적 음주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3.365, p = .010$ ).

음주 후 느낌에 대하여 매우 좋다가 3.30점, 나쁘지 않다가 3.69점, 느낌이 없다가 3.79점, 나쁘다가 3.99점이고 기타의 응답이 3.81점으로 최초 음주시 느낌이 좋았을수록 음주기대가 보다 긍정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왔다( $F = 7.934, p = .000$ ). 최초음주 후 재음주하고 싶은 의사에 대한 음주기대수준은 꼭 마셔보고 싶다가 2.81점, 마셔보고 싶다가 3.52점, 그저그렇다가 3.60점, 마시고 싶지않다가 3.72점, 다시는 마시고 싶지않다가 4.13점으로 재음주 의도가 강할수록 긍정적이고, 적을수록 부정적인 음주기대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 = 19.464, p = .000$ ).

현재의 음주상황에 따른 음주기대는 음복 때

〈표 III-7〉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기대

변 수	구 분	N	M	SD	통 계 량
학 년	5	317	3.99	.73	t = 2.468 df = 621 p = .014*
	6	306	3.84	.72	
성 별	남	364	3.89	.75	t = -1.076 df = 621 p = .282
	여	259	3.95	.70	
부 모 동거형태	부모동거형	578	3.91	.73	F = 5.052 df = 2 p = .007**
	편 부모형	34	3.72	.71	
	무 부모형	9	4.58	.63	
종 교	기독교	134	3.96	.74	F = 1.010 df = 4 p = .402
	천주교	60	3.82	.81	
	불교	263	3.96	.71	
	기타	15	3.90	.75	
	없음	151	3.84	.72	
친구관계	5명 이상	538	3.93	.72	F = .951 df = 2 p = .387
	3~5명	74	3.82	.79	
	1~2명	9	3.77	.78	
학교적응	재미있다	304	4.00	.71	F = 3.669 df = 2 p = .026*
	그저 그렇다	294	3.80	.74	
	힘들다	23	3.80	.88	
부 모 양육태도	민주형	410	3.92	.72	F = .6099 df = 3 p = .609
	전제형	100	3.94	.77	
	익애형	34	3.96	.71	
	방임형	65	3.80	.73	
부 음주	전혀 안마심	103	3.85	.66	F = 1.353 df = 4 p = .249
	좋을 때 가끔	277	3.95	.77	
	나쁠 때 가끔	106	3.90	.71	
	자주 마심	115	3.87	.71	
	거의 매일	13	4.29	.48	
모 음주	전혀 안마심	340	3.95	.73	F = 1.590 df = 4 p = .175
	좋을 때 가끔	217	3.90	.74	
	나쁠 때 가끔	56	3.79	.66	
	자주 마심	8	4.11	.71	
	거의 매일	1	2.6	.00	
음주교육	유	129	3.88	.74	F = -.608 df = 604 p = .543
	무	477	3.93	.73	

\*p < .05, \*\*p < .01, \*무응답자 제외

〈표 III-8〉 음주경험에 따른 음주기대 수준

변 수	구 분	N	M	SD	통 계 량
음주유무	유	417	3.85	.74	t = 3.3796 df = 621 p = .001**
	무	206	4.06	.74	
음주동기	음복	92	3.77	.69	F = 3.365 df = 4 p = .010*
	호기심	95	3.67	.78	
	권유	4	4.42	.57	
	실수	222	3.94	.73	
	기타	4	4.15	.41	
음주 느낌	매우 좋다	15	3.03	.85	F = 7.934 df = 4 p = .000**
	나쁘지않다	70	3.69	.80	
	느낌없다	105	3.79	.70	
	나쁘다	208	3.99	.67	
	기 타	9	3.81	.79	
재음주	꼭 마셔보고싶다	10	2.81	.93	F = 19.464 df = 4 p = .000**
	마셔보고싶다	29	3.52	.69	
	그저 그렇다	89	3.60	.71	
	마시고 싶지않다	98	3.72	.68	
	다시는 마시고싶지않다	191	4.13	.66	
현재 음주	음복시 마심	53	3.49	.78	F = 10.415 df = 2 p = .000**
	마시고싶을 때	23	3.55	.77	
	마시지 않음	340	3.85	.74	
장래 음주 의도	많이마심	7	2.87	1.05	F = 46.764 df = 3 p = .000**
	적당히	155	3.50	.72	
	안마심	267	3.91	.64	
	전혀안마심	192	4.29	.61	

\*p < .05, \*\*p < .01, \*무응답자 제외

마다 마시는 경우의 3.49점과, 마시고 싶을 때 마다 마시는 경우의 3.55점이 마시지 않는 경우의 3.85점 보다 긍정적이라는 유의한 차가 나왔다(F = 10.415 p = .000). 장래 음주의도에 따른 음주기대 수준은 많이 마실것이다가 2.87점, 적당히 마실것이다가 3.50점, 안 마실 것이다가 3.91점, 전혀 마시지 않겠다가 4.29점으로 장래 음주의도가 강할수록 긍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6.764 p = .000).

### 8. 음주지식에 따른 음주기대

음주지식(M = 8.18)과 음주기대(M = 3.92)에 관

〈표 III-9〉 음주지식에 따른 음주기대

변 수	음주기대	음주지식
음주기대	1.000	
음주지식	.396**	1.000
M	3.92	8.18
SD	.73	1.37

\*p < .05, \*\*p < .01

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 = .396(\*\*) p = .000으로 음주지식이 높을수록 음주기대 수준도 높아 부정적인 음주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이후의 문제성 음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생들의 음주기대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잠재적 음주대상자들을 위한 적절한 음주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실질적인 음주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인 초등학교생들은 부모나 친척, 주변사람들의 음주장면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얻은 간접경험과 전통적인 음주문화하에서 이루어진 직접경험을 통하여 본격적인 음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음주가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음주기대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종합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학생 중 음주경험을 한 학생이 66.9%, 그 중에서 남학생이 64.7%로 여학생보다 많은 것은 남학생이 음주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술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동거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부모와 살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동들이 부모나 주변의 음주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보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한 반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동들은 음주환경에 노출이 적었거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음주경험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적 음주기대는 청소년기나 그 이후에 친구나 주변의 권유에 의한 음주환경에 노출되었을 때(김용석 외 3인, 2001), 음주를 거부할 능력이 줄어들고 폭음이나 과음 등 잘못된 음주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대처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은 음주행위가 덜 활발한 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약한 청소년은 자주 술을 마시며 마시는 술의 양도 많았다고 밝

힌 김용석 외 3인(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을 향상 시켜주어,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음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인 음주문화를 교육함과 동시에 타인의 음주권유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한 경우가 그저 그렇거나 재미없다고 한 경우보다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학생들이 음주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Bandura(1977)에 의하면 인간행동은 모델링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특히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거나 관찰대상인 역할모델이 관찰자가 존경하는 인물(예 : 부모님)일 경우 모델링의 효과는 커져 관찰한 행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부모가 음주에 대해 갖는 태도, 부모님의 음주행위 등이 자녀의 음주기대 형성과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김용석, 2002; 이양원, 1995). 음복이나 호기심에 의해서 음주경험을 하였고 음주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상황이 되면 마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음주를 할 의사가 강할 수록 긍정적인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들 학생들은 대체로 부모동거하에서 전통적인 음주문화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학생들은 가정내에서 부모가 음주태도와 문화에 대해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모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자신들의 음주행동을 조절하고 문제음주 행동을 수정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주지식과 음주기대 수준은 유의적인 상관관계( $r = .396$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대를, 지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주지식을 전달하는 음주교육과 음주기대 수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시간에 1~2회 시행되는 현행과 같은 음주교육은 학생들

의 음주기대 형성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수준을 낮추기 위해 음주지식교육이 필요하지만 일회성에 국한된 음주교육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고, 음주가 건강에 무조건 해롭다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의 지식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태도와 음주문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영숙(1995)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주교육은 다른 법적 제재와 병행된다면 효과적이고,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재가 음주문제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학생들의 음주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청소년과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음주기대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 이후의 문제성 음주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학생들의 음주기대 수준 및 음

주기대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및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초등학교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구시의 8개교 5·6학년 62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학생들의 음주경험률은 66.9%이었고, 그 중 남학생이 64.7%, 5학년 이전에 경험한 학생은 84.9%이었다.

② 최초 음주동기는 음복이 22.0%, 호기심이 22.8%이고 실수는 53.2%이었다.

③ 음주지식정도는 10점 만점에 8.1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일수록 지식수준이 높았다.

④ 음주기대 수준에 대한 일반적·환경적 특성, 음주경험, 음주지식 정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주기대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9가지 변수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V-1 참고).

첫째, 학년이 고학년(6학년)이고, 좋은 음주환경(부모동거, 음복으로 인한 음주경험, 음주시 좋은 느낌)에 더 많이 노출될 수록 긍정적인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현재 음주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음주하려는 의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V-1〉 음주기대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

구 분	긍정적 경향	<—————>	부정적 경향
학년	6		5
부모동거형태	부모 동거형		부모 비동거형
학교생활 적응도	그저 그렇거나 힘듦		재미있음
음주경험	유		무
음주동기	음복이나 호기심		실수
음주느낌	좋음		나쁨
현재 음주유무	유		무
장래음주 의도	많이 마심		안 마심
음주지식	낮음		높음

셋째, 부정적인 음주환경(부모가 동거하지 않거나 실수로 음주를 경험하여 그 느낌이 나뉘었던 경우)에 노출될수록 음주기대수준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넷째,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잘하거나, 음주지식이 높은 경우 부정적인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음주경험이 없고, 장래에도 음주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기대 수준이 부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 2.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장래의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음주기대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음주환경, 음주경험 여부, 음주지식 수준 등에 따라 적합한 음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교육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크며 음주교육 프로그램은 획일화되고 사후적인 절주·금주교육보다는 잠재적 음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음주교육 시행 및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교육 시작 전에 먼저 음주기대 수준 및 음주경험 여부 등을 파악하여 「긍정적 기대집단 - 부정적 기대집단」, 「경험자 집단 - 무경험자 집단」 등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교육내용과 형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기대 수준 및 음주지식의 측정을 위한 보다 정교한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음주환경에 노출이 덜 되어 막연한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음주지식 및 건전한 음주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자기통제 능력과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는 음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경험이나 주변환경, 주관적 가치에 의한 긍정적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잘못된 음주행동(폭음, 과음)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음주 후에도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조절 방면에 대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한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주교육 및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절주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음주예방 교육이라기 보다는 사후적인 음주교육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알코올 관련 연구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음주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TV 등 광고매체를 통해 음주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음주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인 초등학교 시기부터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음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새로운 지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금주교육보다는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소개하는 개방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음주에 대한 자기통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담당자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간경애 (1999). 초등학교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경찰청 (2002). 교통사고 통계현황. <http://www.police.go.kr>.
3. 구본미 (1997). TV맥주광고가 청소년의 음주



-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계숙·김희숙 (1993). 아동간호. 신광출판사.
  5. 김석도 (2000).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 기대이론과 기대-가치 이론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성천 (2000). 초등학생 음주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음주문화연구소.
  7. 김용석 (2002). 초등학생을 위한 음주예방 교실. 한국음주문화연구소.
  8. 김용석·김정우·김성천 (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Vol 47. 71-106.
  9. 김용석·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지. Vol 44. 91-116.
  10. 김용석 외 27인(2002). 음주문화환경. 알콜백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11. 김행자 (2000). 중학생의 흡연 및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산지역 남·여 학생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tge.go.kr/index.htm>.
  13. 류경희 (1997). 가족력, 대처방식, 음주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문정순·양수·박호란·이은숙 (2000). 초등학생의 음주예방 보건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국보건간호협회지. Vol 14, No 1. 68-79.
  15. 문정순·양수·송경애·박선남 (2001).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음주에 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보건간호협회지. Vol 15, No 2, 285-300.
  16. 문정순·양수·유양숙 (2001).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음주실태. 한국보건간호협회지. Vol 15, No 1, 73-82.
  17. 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18. 박용주 (1999).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대한보건협회.
  19. 안경선 (1996).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유용연 (1998). 음주 부모의 초등학교 아동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윤혜미 (2000).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과학논총. 제3호.
  22. 윤혜미·김용석·장승욱 (1999).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8호. 153-179.
  23. 이기찬 (1997).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 관한 연구. 소아과학회지. 40(3).
  24.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인 요인. 한국임상심리학회지 : 임상. Vol 12, No 1. 165-179.
  25. 이순영 (2002). 초등학교 보건교육 내용의 분석-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이양원 (1995).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충동성 및 음주기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이영숙 (1995).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 12, No 2. 139-145.
  28. 이용욱·천성수 (2001). 대학생 절주홍보 및 교육방법. 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29. 이용욱·천성수 (2001). 청소년 단주교육의 이론과 실제. 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30. 임계영 (2000). 청소년의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텔레비전 시청과 부모의 규칙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조선일보 (2002). 03. 18. 사회면.
32. 조성기 (1997). 우리나라 음주문화 실태와 알콜문제 해결방안. 건전 음주문화 정착 및 알콜 문제 예방·치료 세미나.
33. 천경애 (1994).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최정아 (1998).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한선희 (1998). 중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홍종필 (1989).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 NJ : Prentice-Hall.
38. Bandura, A. (1977).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191-215.
39. Bandura, A.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j.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40. Black, J. (1994). Alcohol and Young Adolescents. *Lancaster University, unpublished study. Education & Behavior*. Vol 24, No 2, 135-136.
41. Christiansen B.A., & Goldman, M.S. (1983). Alcohol rated Expectancies VS deprogram graphic/back 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1, 249-257.
42. Christiansen B.A., Smith G. T., Roehing, P. V., & Goldman, M. 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t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57, 93-99.
43. Condiott, M.M. and Lichtenstein, E. (1981). Self efficacy and relapse in smoking session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9, 648-658.
44. Dunn, M. E., Goldman, M. S. (1996). Empirical modeling of an alcohol expectancy memory network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a function of grade. *Experimental & Clinical Psychopharmacology*. Vol 4, 209-217.
45. Goldman, M. S. Brown, S. A.,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H.T. Blane & K. 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 Guilford : 181-226.
46. Haydock, Avril RMN (1998). Alcoho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Nursing Standards*. Vol 13, No 6, 43-46.
47. Health Education Authority (1997). *Young people and health : The health behaviour of school-aged children*. London. HEA.
48. Janz, N., Becker, M.H., Kirscht, J.P., Eraker, S.A., Bili, J.F. Woolliscroft, F.Q. (1987). Evaluation of a minimal contac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in an outpatient setting. *AJPH*. Vol 77, No 7, 805.
49. Leigh, B. C. (1987). Belief of effects of alcohol on self and o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48, 467-475.
50. Leigh, B. C. (1989). In search of seven dwarves : Issues of measurement and meaning in alcohol 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5, 361-373.

51. Lipman, J. (1991). Alcohol firms put off public. *Wall Street Journal*, Aug. 21:B1.
52. McMiller, P., & Plant, P. (1996). Drinking, Smoking and illicit drug use among 15 and 16 year olds in the United Kingdom. *British Medical Journal* 313. 394-397.
53. Roehing, P. V., Smith G. T. Goldman, M. S. & Christiansen B. A. (1983). Alcohol Expectancy predict adolescent drinking. *A three year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tice 9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New York City.
54. Shaw, M E & Costanzo, P, R.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2nd ed), 350-351.
55. Smith G. T., Goldman M. S. (1994). Alcohol Expectancy Theory and Identification of High-Risk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2), 229-247.
56. Stacy, A. W., Newcomb, M. D., & Bentler, P.M. (1991). Cognitive motivation and problem drug use: A 9-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0. 502-515.
57. Zucker, R.A., Kincaid, S. B., Fitzgerald, H.E., & Bingham, R. C. (1996). Alcohol schema acquisition in preschoolers: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of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Alcoholism: Children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 19. 1011-1017.